

2012년 종계 · 부화업 결산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원장

올 한해 종계 · 부화업계는 소비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닭고기 가격 하락 등 시장의 악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내년에도 이런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올 한해 우리 종계 · 부화업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닭고기 수입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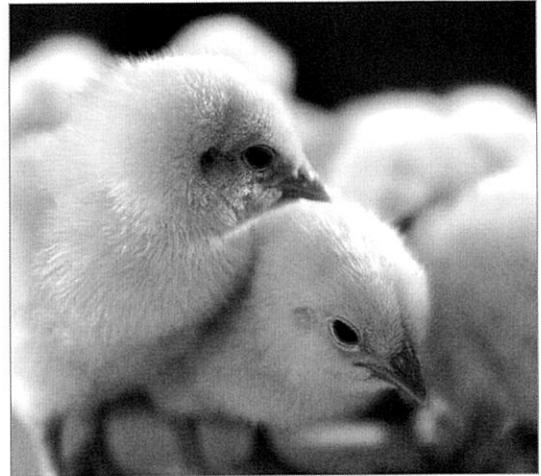
금년 9월까지의 닭고기 수입량은 94,309톤(검역실적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 증가했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대체적으로 국내 육계가격이 높았고, 할당관세 물량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하면, 올해 닭고기 수입량은 평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등 지속적으로 닭고기 수입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닭 강정, 부분육 수요 등 닭고기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과 FTA, 환율하락 등의 국내 닭고기 시장에 불리한 환경이 예상되지만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

2. 종계 입식수수

금년 10월까지 582만수가 입식된 종계는 12월까지 650만여 수가 입식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639만수, 2011년도의 636만수의 종계 입식수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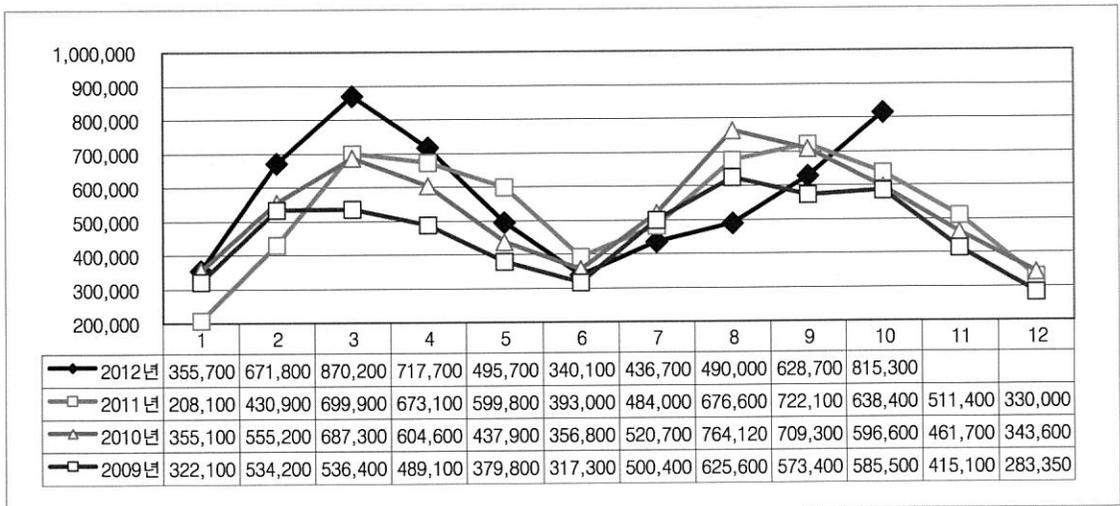
상반기에는 2011년 상반기에 비해 약 15%가 증가된 345만수의 종계가 입식되었으나, 소비둔화와 가격하락 등 시장환경의 악화와 종계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공급물량 증가로 인하여 하반기에는 2011년 대비 약 10%가 감소된 300만여 수의 종계가 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장의 수요가 동반하지 않은 공급의 증가는 가격폭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인 시장경기 악화에 따라 닭고기 소비도 제자리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육계



공급량의 증가에 의해 실용계 병아리와 육계 산지가격은 모두 생산원가 이하에서 형성되어 계열업체와 부화장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농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는 단기간의 불황이 아닌 생존을 경쟁해야 하는 시점이다.

〈표 1〉 최근 4년간 종계분양 현황





3. 종계 생산성 향상

2010년을 기점으로 종계의 생산성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농장 관리수준과 환경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종계의 생산성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판단된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종계라는 생물·사업은 병아리 품질, 사양관리, 환경, 사료, 질병 등 모든 요소들이 적합하게 제공되어야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종계의 생산성 향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노력이 있었겠지만, 정확한 체중관리 등 세밀하고 발전된 사양관리 기법과 정보의 공유, 단열과 환기 등 내부환경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개선된 계사조건, APV 등 생산성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 등이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후반기 산란지속, 폭염과 강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 차단방역 문제 등 조금 더 노력해야 할 숙제가 아직은 많지만, 이 또한 아직 발전할 여지가 더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4. 종계 조기도태

2012년 9월까지의 육용종계 도태수수는 500여만수를 초과하여 이미 2011년 전체 육용종계 도태수수를 넘어섰다. 금년에는 과거와 달리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50주 중반 전후로 종계의 조기도태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질병, 후반기 생산성 저하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장상황의 악화에 따른 업체의 자구적인 대책으로, 시장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630만수를 상회하는 종계 입식수수에 따라 새로 생산에 가담하는 계군으로 인



하여 시장은 여전히 앞이 보이질 않는 상황이다.

5. 기타 변수

매년 여름이면 태풍과 폭염으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되듯이, 겨울이면 추위와 호흡기성 질병에 의한 생산성 감소와 고병원성 AI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다발하는 형편이고, 본래 대한민국의 여름과 겨울은 닭을 키우기 어려운 조건이다. 과거에 비해 계사조건 등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항상 차단방역과 겨울철 환경관리에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 증서부의 가뭄으로 올 여름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했던 옥수수과 콩의 가격이, 예상보다 작황이 좋을 것이라는 미국 농무부

(USDA)의 11월 수확전망 발표와 세계 곡물수요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곡물가격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불안과 투기자금 등에 따라 수시로 춤을 추고 있고, 남미 곡창지대의 가뭄이 작황에 영향을 준다면, 다시 한번 곡물가격의 급등 위험도 있다고 한다.

곡물가격 변동은 통상 3~4개월 이후 사료 가격에 영향을 주며, 육계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업계 전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원종업체의 협의에 의해 금년 상반기 원종계 수입수수는 2011년 하반기 수입수수에 비해 약 10% 감소했고, 금년 하반기 원종계 수입량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금년 하반기 원종계 수입물량의 변화는 내년 중계 입식수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을 딛고 마무리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나, 또 한편으로는 연초의 소망과 다짐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며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